


보도자료 ★ 3월 10일(월) 08: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보도자료	
배포일	2025. 3. 7.	학교(기관)명	통영여자고등학교
홍보담당관 (공보담당)	전화) 278-1791~5	학교(기관)장	김 외 숙 (640-3700)
	팩스) 278-1789		
붙임	사진(○), 영상(x)	담당자	최 승 연 (642-8513)

통영여자고등학교의 ‘마술 가게’ 로

- ‘3년 후 졸업식을 맞을 나에게’ 편지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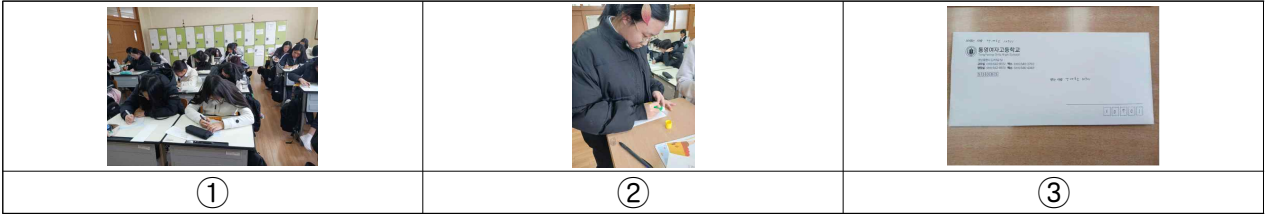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마술’을 현실로 만든 놀라운 비법을 자전적 에세이로 쓴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원제: Into the Magic Shop)’라는 책이 있다. 저자인 제임스 도티(James R. Doty/1955~/미)는 12살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와 만성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일삼았던 어머니와 살면서 동네 마술 가게의 할머니를 통해 배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마술’을 현실에서 실현하여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성공한 기업가 및 막대한 부를 쌓은 자선사업가로 성장하게 된다.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교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통영여자고등학교(교장 김외숙)는 2025년 2월 18일과 19일에 전 교직원이 모여 ‘새학기 맞이 연수’를 실시하였다. 3월 4일에 입학한 신입생 222명을 대상으로 3월 6일 목요일 5교시에는 ‘3년 후 졸업식을 맞을 나에게 편지쓰기’ 활동을 하였는데 통영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사흘째인 신입생들이 3년 후 졸업식장에서 자신이 받을 편지를 써서 학교 주소가 적힌 봉투에 넣었으며 받는 이에는 자신이 올해 부여받은 학번과 이름을 직접 쓰고 딱풀로 밀봉한 활동이었다.

편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을 적은 내용이었을까?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에 대한 계획과 비장한 각오를 적은 내용이었을까? 학생들은 진지한 얼굴로 1학년부에서 예쁘게 디자인하여 개인에게 내 준 편지지에 글을 쓰고 저마다의 다른 모양과 필체로 이름과 학번을 써서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통영여자고등학교는 ‘삶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학생’을 길러내는 인성 교육과 인문계 교육을 실천하고자 마술 가게의

문을 열었다.


[사진 설명]



① 3월6일 5교시에 1학년 학생들이 각반 교실에서 ‘3년 후 졸업식을 맞을 나에게 편지쓰기’ 활동을 하고 있다.

② 자신이 쓴 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있다.

③ 3년 후 졸업식에서 받을 편지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의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